

사례 # 2 ○○○(여, 26세)

1. 사고개요

2001년 5월 10일(병리검사 보고일)

임신중 초음파 검사상 난소낭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출산후에 낭종 제거술 시행함. 조직검사 결과상 경계성 난소암으로 진단됨.

2. 주요병명

좌측 난소 점액성 낭종(경계성 난소암)

3. 치료경과

○ A종합병원에서 '01. 1. 5 ~ 1. 11 (입원)

— '01. 1. 6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 시행

○ 과거력

— '00. 5. 21 산전검사서 좌측 난소낭종 진단됨.

(임신중이어서 직접적인 치료하지 않음)

— '01. 1. 1 출산

4. 질의사항

1) 이 보험에서 암은 침윤암과 상피내암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암'이라 함은 침윤암을 말하며,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하고 있음. 이외 침윤전 초기암(0기암)인 '상피내암'은 따로 분류하고 있음. 침부된 조직검사 결과지상의 mucinous borderline tumor는 위 전암병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피내암 또는 이 보험에서 말하는 '암'(침윤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회신내용

1) 난소의 점액성 종양은 양성, 경계영역성, 악성으로 분류함. 이중 양성 점액성 종양은 상피세포의 증식이 미약하고 증식된 세포의 이형성이 없고 임상적으로도 양성경과를 취하는 종양이고, 악성 점액성 종양은 이형성을 보이는 상피세포의 과도한 증식과 종양세포의 기질내 침윤이 관찰되고 임상적으로도 악성경과를 취하는 종양을 칭함.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은 조직소견과 임상경과가 양성과 악성사이에 걸쳐 있는 종양으로 정의상 악성 종양처럼 종양세포가 증식하여 중층배열과 발아(tuft)를 형성하며, 이형성과 세포분열도 관찰되나 악성 종양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고 종양세포의 기질내 침윤이 관찰되지 않으며, 임상적으로도 본 종양에 의해 환자가 사망할 수는 있지만 악성 종양보다는 훨씬 양호한 임상경과를 취하는 종양을 칭함. A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 보면 환자의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 점액성 종양의 소견을 보이나 기질내 종양세포의 침윤없이 부분적으로 세포의 중층배열과 발아(tuft)를 보이는 부위가 존재하여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으로 진단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의뢰한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은 정의상 종양세포의 기질내 침윤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므로 보험약관에 기술된 침윤암에는 해당되지 않음.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은 carcinoma of low malignant potential으로도 지칭되고 비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환자가 본 종양에 의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전암병소로는 분류할 수는 없는 병변임. 기질내 종양세포의 침윤이 없다는 점으로 정의상 보험약관의 상피내암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피내암은 기저막이 뚜렷한 편평세포암종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상피내암은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은 비록 빈도는 낮으나 악성으로 변환없이 본 종양자체에 의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본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은 보험약관의 상피내암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의 종양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상기 기술한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의 조직소견과 임상경과로 미루어 이 종양을 현재 보험약관에 기술된 침윤암, 전암병소, 상피내암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환자의 병변은 복수, 복막병변(복막가성점액성), 난소표면의 병변, 반대측 난소병변이 존재하지 않고 조직검사 소견상 종양세포의 증식이 국소적이며 이형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계영역성 점액성 종양이므로 현재 보험약관의 분류로는 상피내암에 가장 가까운 병명으로 판단됨.